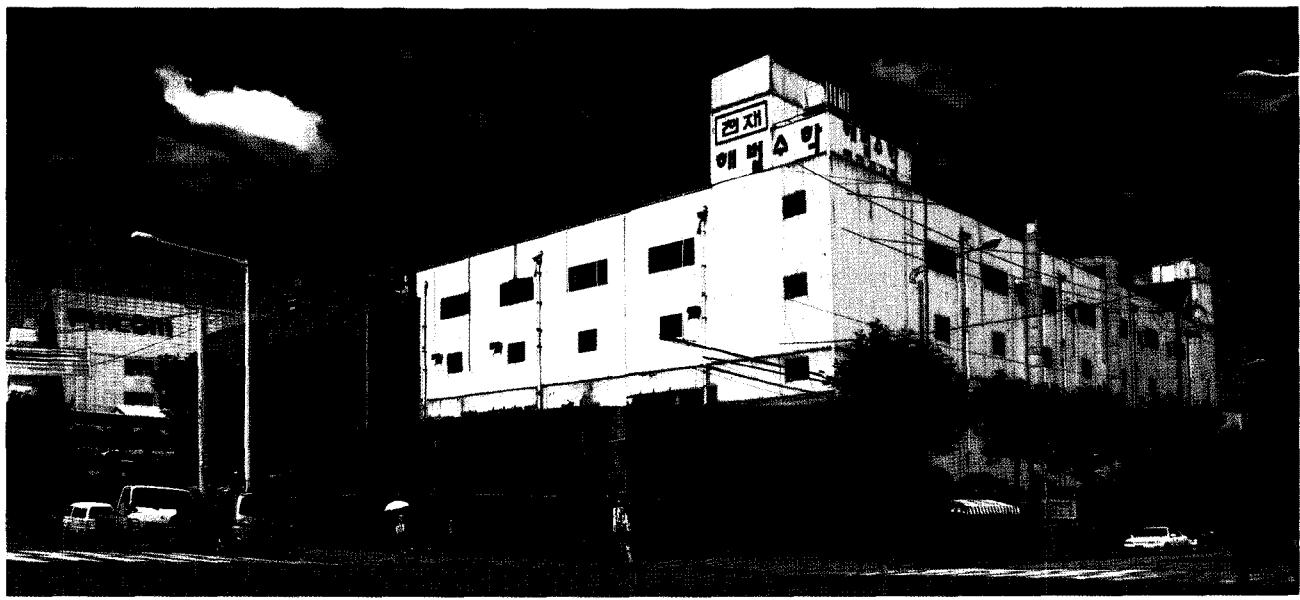




(주)천재교육 **오 병 목** 대표이사

“교육교재 출판 · 인쇄
세계적 경쟁력 갖춘 글로벌기업 목표”

‘해법수학’ 하면 떠오르는 회사, 바로 (주)천재교육이다. 천재교육은 1981년 설립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길 교육출판 사업을 전개해 오면서 우리나라 교육출판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내고 있다. 또한 자회사인 프린피아는 최첨단의 인쇄시설을 갖추고 완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쇄선진화를 선도하고 있다. 수학을 전공하고 중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가 천재교육의 편집사원으로 입사하여 2005년에 사장에 오른 오병목 대표이사를 만나 천재교육과 프린피아에 대해 들어 본다.



(주)천재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출판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81년 10월 10일 창립된 우리 회사는 29년째 교육 한 길만을 걸어 온 국내의 대표적인 교육출판 전문 기업이라고 자부합니다. 교육출판 분야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회사는 그 동안 5, 6, 7차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해법수학〉 시리즈를 시작으로 유아, 유치부터 초등, 중등, 고등 참고서 및 문제집까지 연 3,000여 종에 이르는 학습 교재를 개발·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2세 교육의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창의적 발상을 기반으로 서점 학습지, 맞춤 학습 공부방, 학원 프랜차이즈, 이 러닝(인터넷 해법수학, 해법스터디) 등 교육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최선을 다하자'는 사훈 아래 '창의력 개발, 미래 인재 육성, 교육 서비스 지원'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2세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장차 이 땅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데 참뜻을 두고 있습니다.

천재교육의 경영이념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천재교육은 연간 3,000여종의 학습 교재를 발간하는 교재출판업계 1위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업 분야도 교과서 사업, 학습 교재 사업, 인쇄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 사업, 온라인 교육 사업 등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창립 초기부터 지켜온 정신이 있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곳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도전 정신입니다. 천재교육은 이런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영이념은 '창의력 개발, 미래 인재 육성, 교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 선도, 연구 개발, 정도 경영, 이윤의 사회 환원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주)천재교육은 교육출판 분야의 R&D 투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유행의 주기가 아주 짧습니다. 교재분야도 그렇습니다. 또 교육의 방향과 질도 매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잘 부응하고 리드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각 편집 팀마다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되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고, 초·중·고교를 등급별로 나

(주)천재교육은

(주)천재교육은 1981년 최용준 회장이 집필한 '해법수학'으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에는 직원 3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주)프린피아, (주)천재문화, (주)천재미디어, (주)천재상사 등 4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근무하는 직원은 1,000여 명. 천재교육은 그동안 다양한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자회사를 통해 다각화된 사업 분야를 발굴, 2000년 이후 초·중등학원 프랜차이즈와 공부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여 전국에 3,000 여 개 이상의 기맹점과 20여 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오병목 대표이사는

오병목 (주)천재교육 대표이사는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다. 어릴적 꿈은 중·고교 수학선생님.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그는 1977년 군 제대 후 어릴적 꿈대로 경기도 이천의 한 중학교에 수학선생님으로 별령을 받았다. 그러나 선생님으로서의 생활은 잠시. 1주일 만에 사표를 냈다. 교학사의 수학 담당 편집사원으로 입사했다. 그리고 얼마 후 천재교육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기 까지 교육출판이라는 외길을 걷고 있다. 2005년에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디자인실 모습

●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오병목 대표이사



뉴 학생·교사·학원강사·관련 전문가 등 300여 명으로 고객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우리가 만든 교육교재는 베스트셀러가 되어야 한다”라는 목표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쇄시설을 도입하는 배경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업 이후 사회공헌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해마다 장학 사업 및 기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1986년부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학생 6명과 전남 진도 석교고등학교 학생 20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관장학회에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사업으로는 전남 진도 석교고등학교 건립부지(27,770m²)와 2004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약 1억8천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한 바 있으며, 복지재단 및 교육기관 등에 본사 학습참고서를 전달하는 한편, 2006년에는 굿네이버스를 통해 국내 결식 아동과 중국 거주 한국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학습지 해법수학, 학습지 해법한자 등 약 6억 원 상당의 유아/초등학생 학습지 총 8만 5천부 기증했습니다.

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등 각종 복지재단에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 우등생 해법시리즈 텍스트를 제공하여 점자도서 발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 활동을 돋고 있습니다.

토텔 솔루션 구축, 인쇄선진화 앞장

자회사인 (주)프린피아는 완전자동화, 최첨단의 인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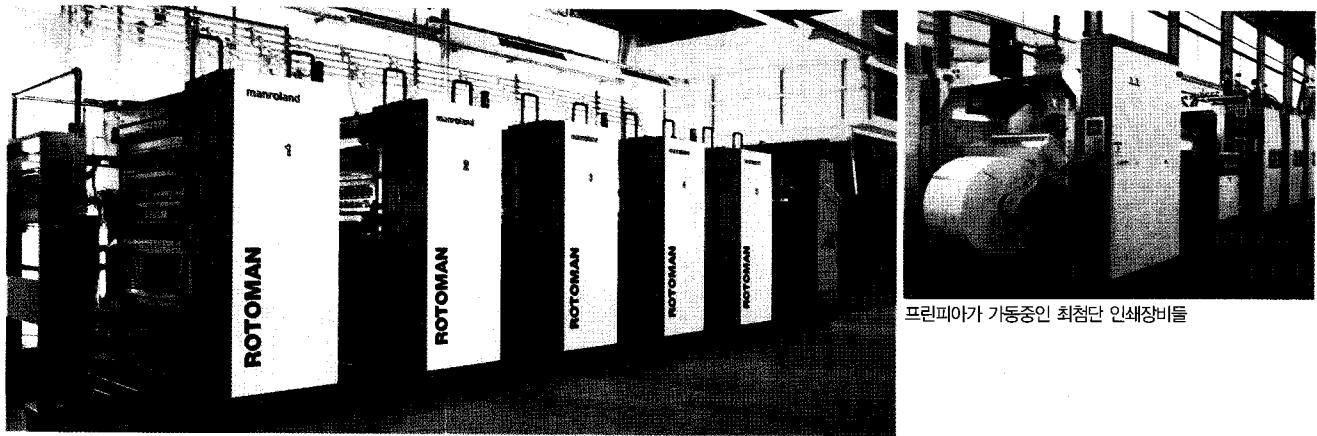
프린피아는 1990년 선진 인쇄출판 문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로 설립되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만로랜드의 로또만 10색 윤전기를 도입하고 하이델베르그, 미쓰비시 등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쇄품질과 생산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 편집, 인쇄, 제책 등 출판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토텔 프린팅 솔루션을 실현함으로써 완벽한 품질과 납기준수 및 원가절감의 효과까지 이루어내

| 본사 인쇄시설 현황 |

구분	수량	기계명	국적/제조사	제원	생산성(시간당)	평균생산량
인쇄	국윤전	1	뉴 폴리만	독일/만로랜드	8색	40,000통
	4×6 윤전	2	미쓰비시 BT2-800	일본/미쓰비시	8색	48,000통
	매연기	2	미쓰비시 3G-4	일본/미쓰비시	4색	15,000장
	무선 온라인	1	요시노	일본/요시노	무선26/정합 30콤마	12,000부
제책	중철기	1	룰러마티니	스위스/룰러마티니	8콤마	12,000부
	접지기	1	스탈	독일/스탈		10,000장
		1	M.B.O B-26	독일/MBO		10,000장
	재단기	2	플라 115E	독일/플라		32R
제판	침입(로리)기	1	동출	한국/동출기계	6콤마	6,000
	출력기	3	Tanto6120	일본/다이니포스크린	필름 출력기	1194.8cm
	CTP	1	PT-R8800	일본/다이니포스크린	CTP	30장

| 파주공장 인쇄시설 현황 |

구분	수량	기계명	국적/제조사	제원	생산성(시간당)	평균생산량
국윤전	로또만	1	Rotoman	독일/만로랜드	8색	40,000v
	캐비우	1	Kba50	독일/만로랜드	8색	50,000/h
	로랜드	1	3G-4			



프린피아가 가동중인 최첨단 인쇄장비들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린피아는 꾸준한 시설투자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종합 인쇄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출판 인쇄업계도 종이 등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과 물량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교육과 프린피아는 어떤가요?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교재 구매력이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원부자재 가격이 전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원가 인상분을 교재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사 차원의 비용절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쪽수나 판형 관련한 원가 절감운동과 에너지, 소모품 등 비용절감 15%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 직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올해 투자 확대 계획

(주)현재교육과 (주)프린피아의 사업 계획은 소개해 주시지요.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인재 육성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사업계획에는 7차 개정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양질의 교과서와 참고서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1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프린피아는 2009년에 새로운 인쇄 장비를 도입하여 생산성과 품질력 향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시설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여 캬바우, 만로랜드 국전

윤전기 각 1대를 구입하였고, 하이델베르그 CTP 장비인 슈프라세티105 2대를 도입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교재와 완성 품을 만들기 위해 전체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매출액은 사상 최초로 301억 원을 달성하였고, 2009년 매출액은 34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공존 공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 내부적인 절감 노력과 함께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

인터뷰 유창준 국장·사진 박성권 기자

| 주안 공장 인쇄시설 현황 |

구분	수량	기계명	국적/제조사	제원	생산성(시간당)	평균생산량
인쇄	국윤전	1	뉴 플리만	독일/만로랜드	10색	65,000통 가습장치 설치
	4×6 윤전	1	M-600B	독일/고스	8색	50,000통 가습장치 설치
		1	M-600C	독일/고스	10색	55,000통 가습장치 설치
	매엽기	1	R705	독일/만로랜드	5색	16,000장 2006. 9
		1	R704	독일/만로랜드	4색	16,000장 2006. 9
		1	RAPIDA 105	독일/KBA	8색	18,000장 2007.3
		1	RAPIDA 105	독일/KBA	4색	18,000장 2007.3
제책	무선 제책기	1	요시노	일본/요시노	무선(48 콤마)	13,000부 2005.10
		1	뮬러마티니	스위스/뮬러마티니	무선(30 콤마)	12,000부 2007.11
	제판	1	동출	한국/ 선원동출	무선(16 콤마)	6,000부 1992.
	증철 제책기	1	뮬러마티니	스위스/뮬러마티니	증철(12 콤마)	12,000부 2006.4
	접지기	3	스탈	독일/스탈		11,500장
	재단기	3	풀라 115E	독일/풀라		32R
제판	출력기 CTP	1	PT-R8800	일본/다이니폰스크린	CTP	30장